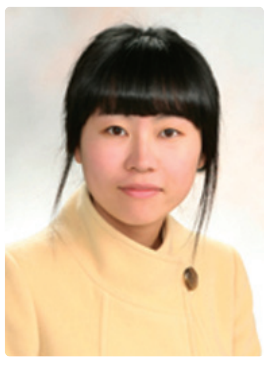
| 우리를 위한 오늘 모두를 위한 내일 |

Newsletter 2013. 9 VOL.11

한국고전문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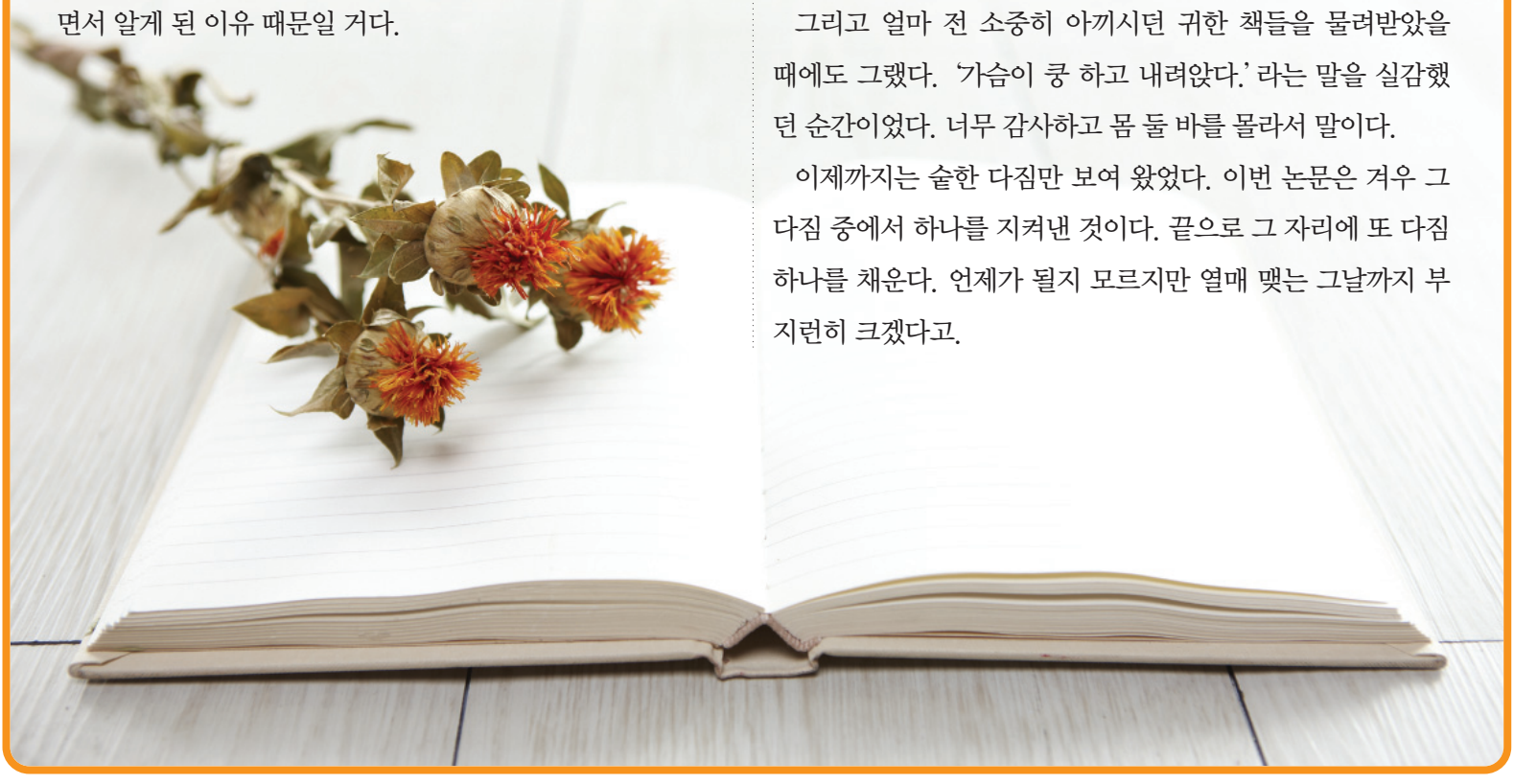
논문을 마치며...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연구원
송 정 현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송정현입니다." 이 인사말은 8월을 기점으로 "석사 졸업생입니다."로 바뀌었다. 달라진 건 이뿐만이 아니다. 햇빛 잘 드는 낮에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낮에 돌아다니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겠지만, 논문을 쓰는 내내 새벽에 글이 잘 써졌기에 낮에 뜨는 햇빛은 거의 못 보고 지내왔다.

낮은 온전히 밤샘 작업을 위한 준비 시간일 뿐이었다. 길고 길었던 새벽과의 친분은 집보다 연구실이 편해질 때가 돼서야 겨우 끊을 수 있었다. 그게 7월의 마지막 주인 대학원 논문 마감일을 훨씬 넘긴 후였다. 여러 번의 주제를 바꾸고 수정해야 했기에 마지막까지 기한을 연장한 이유에서다. 지금에 와서 하는 말이지만 새벽 내내 '그만둘까' 라는 생각으로 지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 시간에 완성을 향해 좀 더 나아갔더라면 적어도 올 여름에 휴가는 다녀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노라면 남들 다 다녀온 휴가도 못 가서 속상할 법도 한데 전혀 그런 생각은 안 든다. 아마도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알게 된 이유 때문일 거다.



처음에는 논문은 오직 나 혼자만 짊어지고 가는 짐이라고 생각했다. 남은 오로지 탓할 때만 쓰는 거라고, 나 혼자뿐이라고 믿었다. 참으로 어리석었다. 돌이켜보면 작업을 하는 몇 달의 기간 동안 내 짐을 나눠서 짊어 준 분들 덕분에 완성할 수 있었는데 말이다. 그래서 논문 표지에는 내 이름 말고도 채워야 할 이름이 많다. 처음 역사라는 학문에 뿌리내릴 수 있게 토양을 만들어 주신 분의 이름도 채워야 하고, 또 몇 번이나 말라 비틀어 죽을 고비마다 물을 내어주신 분들의 이름도 들어가야 한다. 그만큼 감사한 마음을 전할 분이 한두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 뭐 얼마나 대단한 논문인가 궁금해하겠지만 아직 아무것도 없다. 이제 겨우 한 뼘 자랐다. 열매는 아직도 멀었다. 지금은 한 뼘이지만 뿌리는 더 단단해졌고 나름대로 바람을 이기는 방법도 조금은 알게 됐다. 그래서 이제가 시작인 것 같다. 그때를 견뎌낼 수 있었던 시 한 구절을 옮겨 당시를 기억해 본다.

김수영의 '거미' 라는 시다. 그는 '내가 으스러지게 설움에 몸을 태우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이 구절이 오래도록 '김수영을 위하여' 라는 책을 선물 받았을 때를 기억하게 한다.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응원이었다.

그리고 얼마 전 소중히 아끼시던 귀한 책들을 물려받았을 때에도 그랬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다.' 라는 말을 실감했던 순간이었다. 너무 감사하고 몸 둘 바를 몰라서 말이다.

이제까지는 숱한 다짐만 보여 왔었다. 이번 논문은 겨우 그 다짐 중에서 하나를 지켜낸 것이다. 끝으로 그 자리에 또 다짐 하나를 채운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열매 맺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크겠다고.

| 연구원 소식 |

2013년 회원의 날 개최 (2013. 8. 31~9. 1)

장수군 번암면 논곡리에 위치한 나눔푸드 부설 연수원 "별이 뜨는 인문학당"(이하 별학당)에서 2013년 회원의 날을 개최(1박 2일)하였습니다. 9월 정식 개원을 앞둔 별학당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김병문 이사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임원진 및 많은 회원분이 참석하였습니다.

독도 관련 전시 및 영화 감상, 침 · 뜸 체험(김경수 이사), 사업경과보고(변주승 부원장), 애장품 경매, 풍등 띄우기, 별바라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회원의 날에는 바쁘게 움직이는 도심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화를 내려 놓고 나 자신과 마주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기획하였습니다. 프로그램도 여유롭게 구성하고 참가한 회원들이 자유분방하게 움직이도록 하였습니다. 일명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바빠진 현대사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란 참 어렵습니다. 잠시라도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혹은 뒤쳐진다는 생각에 무엇이라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우리들입니다. 가만히 앉아 바람이 하는 말, 물 흐르는 소리를 들어 보고 깜깜한 어둠 속에 앉아 별과 마주하며, 풍등 하나에 작은 소망들을 적어 띄워 보내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하는 시간을 갖길 바랐습니다.

회원의 날 하루만이라도 현실에 부대끼지 않는 편안한 날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한국고전문화연구원 회원의 날에는 바쁜 일상 잠시 내려 놓고 자연과 마주하며 마음이 건강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 마다하지 않으시고 외진곳까지 찾아와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8차 운영위원회 개최 (2013. 8. 9)

8월 9일 8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 31일에 개최될 회원의날 프로그램 검토 및 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 사업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독도야 놀자" 전시 및 퍼포먼스 진행 (2013. 8. 15)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독도야 놀자" 전시 및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퍼포먼스는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1학년을 주축으로 전주공고(3명), 전북 제일고 학생(1명)들이 참여하여 '아리랑' 과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맞춰 플래시몹을 펼쳤습니다.

풍남문 광장과 경기전 앞에서 각각 진행하였으며, 손도장 및 서명으로 대형 태극기 완성하기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시민들께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이유에 맞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밝히는 역사적 사료가 담긴 책갈피와 홍보리플렛을 나눠 드렸습니다.

전시는 "독도야 미안해", "독도야 널 알고 싶어", "독도야 사랑해" 세 테마로 나누어 풍남문 광장에서 열었습니다.

행사에 송하진 전주시장님이 들러 격려를 주셨으며, 변주승 부원장, 홍성덕 이사, 박병훈 전임연구원, 한명수 운영위원, 박애스더, 박해숙, 오경택 님 등 회원분이 참석하여 응원의 박수를 주셨습니다. 특히 인터넷 마패뉴스, 전북중앙신문 등 언론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독도 청소년 강좌 진행

(2013. 8. 22.–성심여고 / 8. 30.–전주공고)

전주대학교 교양학부 임숙정 강사가 독도 청소년 강좌를 전주성심여고 및 전주공고에서 열었습니다. "대중매체 속 독도"란 주제로 독도 관련 노래 · 영화 · 광고 · TV프로그램(무한도전)을 통해 독도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더 나아가 우리 땅 독도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일깨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고전문화연구원

후원계좌 : 우체국 400010-01-020629 / 국민은행 506501-04-303390 / 전북은행 505-13-0335557
예금주: 사)한국고전문화연구원 / CMS를 통한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연구원으로 연락주세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어진길 102(제세한의원 2층) 전화: 063-286-3005 / 팩스: 063-286-3007
이메일: hangoyeon@hanmail.net 홈페이지: www.clature.kr